

2018년 7월 29일, 제주시 도두1동 이옥선 씨 댁, 이현정 조사.

이옥선(여, 1938년생, 제주시 도두1동)

-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출생, 20대 초반 직업군인인 남편을 따라 약 15년간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며 생활하다가 귀향하여 도두동에서 살고 있다.

- 줄거리: 제주시 도두동에 침을 들고 다니며 소의 병을 고치는 소침 하르방이 어느 날 외출을 하다가 도깨비에게 홀리고 말았다. 도깨비는 소침 하르방에게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며, 가시덤불이 있는 곳으로 소침 하르방을 끌고 다녔다. 가시에 온 몸이 찢리고 굵혀 피가 나가되자 피를 싫어하는 도깨비는 도망가 버렸다. 간신히 살아돌아온 소침 하르방은 한 두 해가 지나 죽고 말았는데, 도깨비에 홀린 사람은 몇 해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.

[제보자] 우리 동네타르방도 쉼, 쉼병 나민 그땐 의사가 엇엇거든. 소침 주는 하르방이 막 쉼 헤영 탄 동네 사름덜이 몰앙 와게. 몰앙 완 병 7췌 가젠이. 발로 찢룩찢룩 허는 것도 가져오고 경허난. 그런 하르방안틴 머서와서 도체비가 안 들릴 건디이.

한번은 그 하르방이 어디 갓당 오단이, 그 도체빌 만난 거라이. 그 하르방은 도체빈 줄은 모르고 사름 닳으니까 따라서 자꾸 간 거라. 가다 보난 이래 저래 곳영 덩연. 그 하르방이 죽어불엇이믄 모를 건디. 사니까 말을 허여 주는 거라.

막 어떤 사름이 나와가지고 자기허곡 가젠 행, 질 7르쳐 주켄 헨 따라가당 베려 보면, 막 어디 까시 잇는디 질이엔 헤영 가당 보민 까시 잇는데 걸려정. 막 헤메영 제우나 나오면 또 그런 딜로 곳영 가고 허더렌 허는 거라. 게난 막 곳영 덩여 노난 일로고 얼로고 다 찢어져가지고. 이제는 까시 경 엇주만은 그때는 까시가 많았다고.

이젠 막 농약을 행 죽여부는 때문예이. 밧을 더 벌어 먹기 위해서 옆으로 까시 못허게 하젠 막 약 처 불민 죽는디. 그 당시는 경 아니 헤연 놔두난. 막 이 질 7르쳐 주노렌

“웁서 가게.”

헤영 일로 곳영 가곡 절로 곳영 가곡. 겐 집 즈췌데라도 뱅뱅 곳영 덩이멍 하

르방을 얼마나 애 맥여 불었인지. 그 하르방이 이젠 나중에는 막 피 나노난. 도체비는 피가 싫어헌덴게. 벌경헌 피가.

경헨 막 피가 일로 절로 나노난 데껴 된 도망가 분 거라게. 가시자왈에 갓당 데껴된 도망가 부난. 하르방이 살아난이 누게가 돌아왔어. 보니까 안 찢어 진 곳이 었언. 그 하르방이 뭐 사름 소리나난 동넷사름산디 누게 돌아온 건 모르크라. 돌아와 보난 막 다 찢어져 불고 옷도 다 찢어져 불곡.

경헨 그 하르방이 살아오라네 훈 두 해 더 살앗일 거라. 거 도체비 흘려 나민 두 해 이상 못 산덴.

- 핵심어: 쉼병(소병), 소침, 하르방(할아버지), 도체비(도깨비), 피, 가시자왈(가시덤불)